

“지방분권, 문화분권 실천 필요”

‘지역문화가 열쇠다’ 토론회
김승수 “전주 문화특별시를 지방분권 성장 모델로 키워”
유은혜 “지역문화가 살아야”
진선미 “지역문화발전 필수”
도종환 “문화분권 현실 돼야”

문재인 정부가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있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제대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전주문화특별시와 같은 문화분권의 실천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2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안전행정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유은혜, 진선미 의원,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상임대표인 김영배 성북구청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문화계, 학계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시대 ‘지역문화가 열쇠다!’ 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유은혜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문화

는 모든 국민의 권리”라고 전제한 뒤 “생활문화시대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지방분권적 사고와 상향식 전달체계로 대전환을 이뤄내야 하고 ‘사람’이 있는 지방분권이 되려면 ‘지역문화가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선미 의원 역시 “수도권으로만 흘러들려 사람과 경제의 물길을 지역으로 끌고 생기가 도는 지역사회를 만들려면 지역문화 활성화가 최선의 방법”이라며 “지역에 문화산업, 문화기반시설, 지역축제, 예술가 등 문화자본이 늘어날수록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방분권의 필수조건으로 지역문화의 발전을 꼽았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지방분권시대, 문재인정부의 지역문화정책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정치와 행정은 국민들이 좀 더 가깝게 문화를 향유하고 참여하게 해서 사람의 질을 개선하도록 해야 하는 만큼 이제 문화분권은 가치를 체감하는 실천이 되어야 하고 관점에서 벗어나 현실이 되어야 한다”면서 문

화유산의 보존과 문화분권 조성, 문화 일자리 창출 등 지방분권시대 지역문화 정책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강원원 투계터광산 나눔문화재단 대표가 ‘촛불시민이 여는 주민자치의 현장’을, 이원재 문화연대문화정책센터 소장이 ‘문화분권을 위한 선행조치, 행정혁신’을, 김종휘 성북문화재단 대표가 ‘지역문화와 민주주의 동반성장, 협치와 융합’을 주제로 기조발제 후 토론을 펼쳤다.

전국자치단체장을 대표해 지정토론에 참석한 김승수 전주시장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 국가 중심의 성장을 했지만, 도시는 성장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시대가 종결되고 ‘도시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면서 “성장의 관점을 바꿔 도시의 성장을 통한 국가의 성장, 시민의 성장을 통한 국민의 성장으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집권적인 정치와 행정, 문화가 아닌 지방분권화가 실현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김 시장은 “지방분권화는 말 그대로 국가의 시대가 아닌 도시의

시대를 맞이하는 것으로, 강력한 ‘정책성’을 지닌 도시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을 지니게 될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천년의 역사와 문화가 잘 보존되고 있고, 문화 재창조를 통해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중심력이 있는 전주가 ‘도시의 시대’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정수를 할 수 있는 전주는 문화와 관광을 통해 1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었다. 국가 차원에서 전주를 문화특별시로 만들어 지방분권의 성장 모델로 키워내야 한다”면서 “문화의 열매는 관광이고, 그 관광을 육성하지는 게 전주를 문화특별시로 키워나가는 것”이라며 전주시가 문화특별시 지정을 통해 지방분권의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박재훈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과 차재근 한국문화예술협회 회장, 윤종진 행정자치부 자치제도정책관도 토론자로 나서 지방분권시대에 지역문화가 갖는 위상과 중요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인재용 기자

선제적 대응이 식중독 막을 수 있다

전주시, 음식물 보관·관리·섭취에 각별한 주의 당부

전주시는 올해 6월부터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5°C가 높고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음식물의 보관·관리·섭취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중독은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 속에서 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 캄필로박터, 장염비브리오 등 세균중독 축진이 주원인으로, 예방을 위해서는 식품안전관리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선, 신선 재료를 필요한 만큼 구입하고 열이 많은 주방기구 주위에 보관하지 말고, 생육·생선·계란 등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세정제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 씻기, 채소류는 염소 소독액 등으로 5분 이상 담근 후 3회 이상 세척하고 2시간 이내에 사용하거나 즉시 냉장보관, 음식물은 가능한 내부까지 완전히 익도록 충분히 가열, 조리된 음식은 가능한 빨리 2시간 이내 섭취 등을 실천해야 한다.

한편 전주시는 최근 식중독 예방을 위해 대형 식품판매업소와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급식소를 대상으로 한 식중독 예방 맞춤형 특별 위생 점검을 진행했으며, 여름철 성수식품인 콩물, 냉면육수 등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했다.

다음 달부터는 아식을 비롯해 배달전문 음식점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과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식중독 사전예방 컨설팅 및 전 통시장 위생지도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에너지 안전도시 구축 탄력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운용조례’ 가결돼

전주시가 에너지의 사용주체인 시민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안전도시 구축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에너지안전도시로 구축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는 근거인 관련 조례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기금조례)’가 시의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에너지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에너지 디자인 3040’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기금조례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저감, 에너지이용 효율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등 각종 에너지사업에 필요한 기금의 설치·운용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오는 2022년까지이며, 전주시 자체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발생하는 전력 판매수익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기금의 재원으로 만들어진다.

기금은 에너지디자인 3040사업, 온실가스 저감 기술개발 및 관련사업,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교체사업,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사업, 빈곤층

에너지 지원사업, 기후변화대응 관련사업,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이에 앞서, 시는 에너지법 제7조 및 에너지기본조례 제5조를 근거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시민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수립된 지역에너지계획을 통해 지역에너지 독립선업을 통해 지자체 중심의 에너지 분권 및 자립의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에너지자립 문화도시 전주(내가 만든 에너지, 따뜻한 전주)’라는 미래 비전 아래 오는 2025년까지 에너지 자립률을 30%, 전력 자립률을 40%까지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에너지디자인 3040’ 실현을 위한 전략과 효율, 분산과 생산, 참여와 나눔, 교육과 문화, 상생과 통합 등 5대 전략과 30대 과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에너지안전도시 구축을 뒷받침할 기금조례 제정이 전주를 에너지자립 문화도시로 만드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전주향진회 회장 최봉섭씨
 전주민간기록물 공모 시상금 100만원 시에 기탁

전주민간기록물 공모전에서 대상(꽃심상)을 받은 전주향진회 회장 최봉섭씨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시상금 전액 100만원을 전주시에 기탁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최 씨는 지난 6월에 실시한 공모전에서 1920년~1960년대 전주의 일대기를 담은 여러 기록물 기증해 대상을 수상했다.

최 씨는 “집에 보관중이던 기록물 기증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증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듯이 이 성공도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게 돌보는 나눔문화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을 생각하는 전주시민의 관심이 전주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전주, 살맛나는 전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시, 독거어르신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전주시가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다음달 말까지 생활관리사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면담하는 방식으로 독거어르신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어르신별 조사카드를 작성해 ‘잠재적 고독사 위험군’, ‘고독사 위험군’, ‘고독사 고위험군’으로 분류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전수조사는 전체 8300여명의 어르신

중 지난해 5월 1일 이후 만 65세가 된 1인 가구와 전주시로 전입한 독거어르신 등 2400여명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부재중으로 제대로 조사가 안될 경우를 대비해 매일 추가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가정 방문 시 생활환경이 매우 취약하거나 은둔, 우울, 자살위험 등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즉시 독거어르신 친구들끼리 사업담당자에게 지원을 의뢰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동급생 폭행·금품 갈취 익산 중학생 수사

익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동급생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익산경찰서는 지난 21일 피해 학생 2명의 학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고소장에서 “동급생 3명이 다른 동급생 2명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돈을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이 접수된 A(15)군 등 3명은 피해학생들을 이윤없이 때리고 돈을 적게 주고 음식을 사오라고 시키는 등의 행위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 내 학생 피해 조사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전국 돌며 빈집 텃 50대 구속

전국을 돌며 빈집을 노려 절도행각 벌인 50대가 구속됐다.

전주지방경찰서는 25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A(58,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 30분께 전주시 장동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귀금속 6개를 훔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전주, 대전, 평택 등 전국을 돌며 11차례 걸쳐 2,270만원 상당의 귀금속 41점을 절취했다.

조사결과 A씨는 주로 저녁 시간대에 불이 꺼진 저층 아파트에 침입해 범죄를 저질렀다. /이상민 기자

www.jjnh.co.kr

조합원님!! 자식 같은 농산물 모두 팔아주는 농협을 만들겠습니다.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으로 전주시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 로컬푸드직매장 10곳 개소로 영세농업인 소득향상

복숭아, 장미, 호박, 배, 미나리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조합장 임인규

상임이사 (신용)오태식, 상임이사 (경제)나병훈, 이사 김대진, 김양순, 김종표, 김태영, 김형수, 송재규, 신동선, 오남석, 유석용, 이상현, 이성광, 주동현, 사외이사 김병용, 이희열, 감사 정무성, 조미희

농민과 도시의 상생협력을 지향하는 전주농협 Good 농산물